
정책참고자료

2019-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 빅데이터로 취약가정 예측하고 자립을 위한 선제적 맞춤 복지지원 -

4

2 국민권익위원회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 대한민국’ 만들기 앞장선다

- 국민권익위-17개 시·도지사, 제주서 청렴협약 체결 -

10

3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지원 예산 ’18년 대비 1,616억원 증액한 5,370억원 규모로 확대’

-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

14

4 교육부

고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현장실습 개선방안 모색

- 직업계고 현장실습 국회 공청회 개최 -

20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유아, 노령층 스마트폰 과의존에 민관협력 대응 강화

-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 -

23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분야 혁신 창업의 성공을 돕습니다

- 1. 23.~2. 27.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

26

7 농림축산식품부

겨울방학에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30

8 환경부

울산 등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 이미 시행중인 12개 시도와 함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미시행 5개 시도에서도 1월 22일부터 전격 도입-

40

9 고용노동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직업 능력이 중요한가?

- 한국고용정보원, 4차 산업혁명 전문가 250명 대상
미래직업기초능력 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가 꼽은 미래 중요도
1위 '위기대처능력' -

43

10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33,921건 지원 실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47

11 국토교통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용자 신청하세요..16일부터

- 복합개발형 총 사업비 50%까지 지원..연2%대 장기저리로 산단 활성화 기대 -

54

12 해양수산부

명태자원 회복 위해 앞으로 연중 포획 금지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1. 21. 시행 -

57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 빅데이터로 취약가정 예측하고 자립을 위한 선제적 맞춤 복지지원 -

- 정부는 2015년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증평 모녀사건('18.4월), 구미 원룸 부자사건('18.5월)과 같이 복지 현장에는 여전히 혜택에서 소외된 이웃이 존재한다.

* (수급기준) 최저생계비 → 기준중위소득, (수급자수) : ('14년)1,329천명 → ('15년)1,646천명

- 건강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그 이유 또한 다양하다. 지자체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 이하 '관리원)과 경기도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을 추진하였다.

- 관리원은 안성시로부터 제공받은 복지 데이터*와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 ① 복지현황 파악을 위한 복지공감(共感)지도를 제작하고,
- ②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 ③ 위기가정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 과거 4년('15년~'18년)간의 공적 복지급여 지급 내역(약 6.1만건), 민간 복지기관

지원 내역(약 6.3만건), 위기가정 지원 내역(약 500건) 등

** 안성시 인구통계(15개 행정구역별, 연령별), 안성시 버스노선도 및 운행시간 등

- 우선, 복지공감 지도는 공간분석(GIS)을 활용하여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의 다양한 지원항목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복지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으며 복지기관의 역할(생필품지원, 방문상담 등)을 최적화하고, 복지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하는 등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 또한, 이번 분석을 통해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3개소(공도읍 2개소, 대덕면 1개소)를 복지기관 추가 설립지로 제시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아우르는 복지셔틀버스 4개 노선을 선정하여 시범운행을 제안하였다.
- 이를 적용하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6,130명(55.7%) 중 1,567명(25.56%)이 복지기관 접근성 향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질병·부상 또는 실직 등의 사유로 한시적(3~6개월)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가정(긴급복지, 무한돌봄)이 기초수급대상이나 차상위 계층과 같은 지속적 지원 대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약 83.3%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분석모델도

개발하였다.

- 이 모델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 (GBM)*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안성시의 과거 3년간의 위기가정 지원 내역을 학습시켰으며, 월소득, 세대구성, 질병부위 등 11개 항목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 (Gradient Boosting Machine) 약한 예측모델을 결합하여 예측도를 향상시키는 분석 기법

- 이를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처방을 통해 일반가정으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 양 기관은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1월 25일 안성 시청에서 **찾아가는 분석 완료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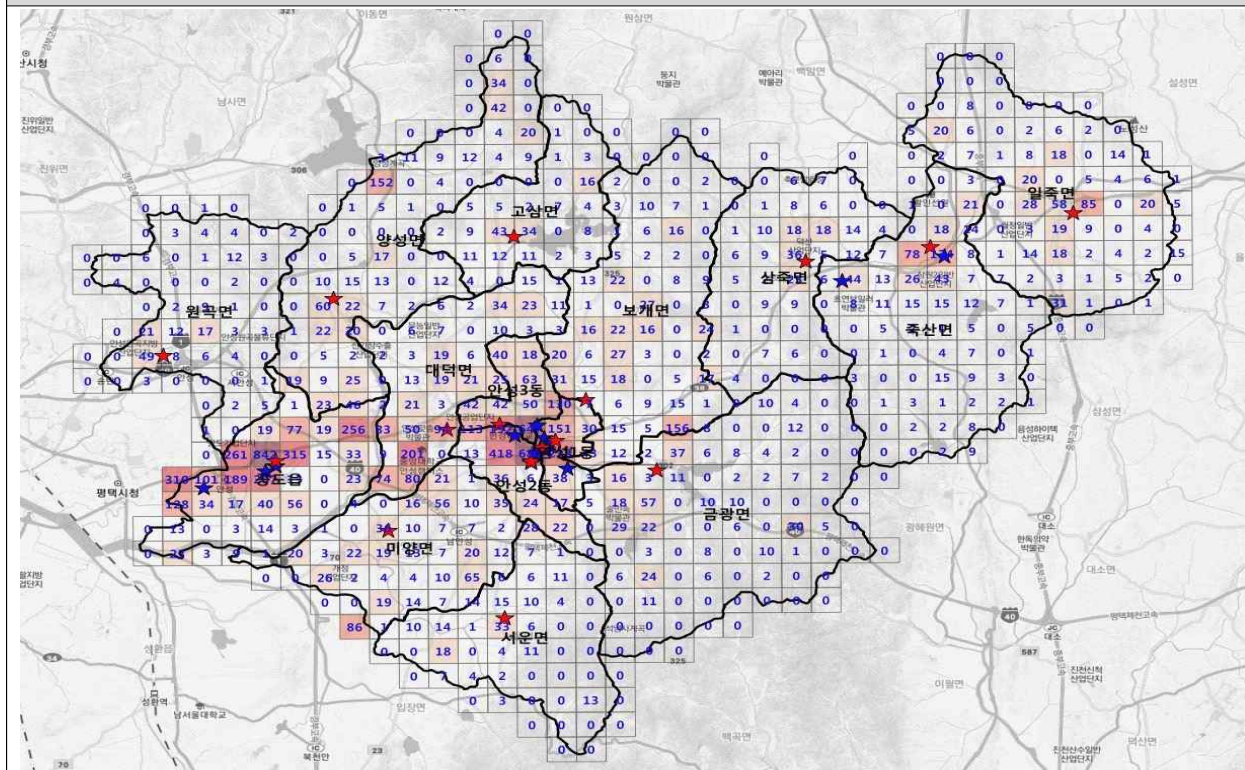
- 안성시는 관리원이 개발한 ‘위기가정 예측모델’을 자체 복지 시스템에 적용하여 상시 활용하고, 관리원이 제시한 복지기관 추가 설립과 복지 셔틀버스 시범운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번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례”라며, “분석 결과가 보다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어 맞춤형 복지실현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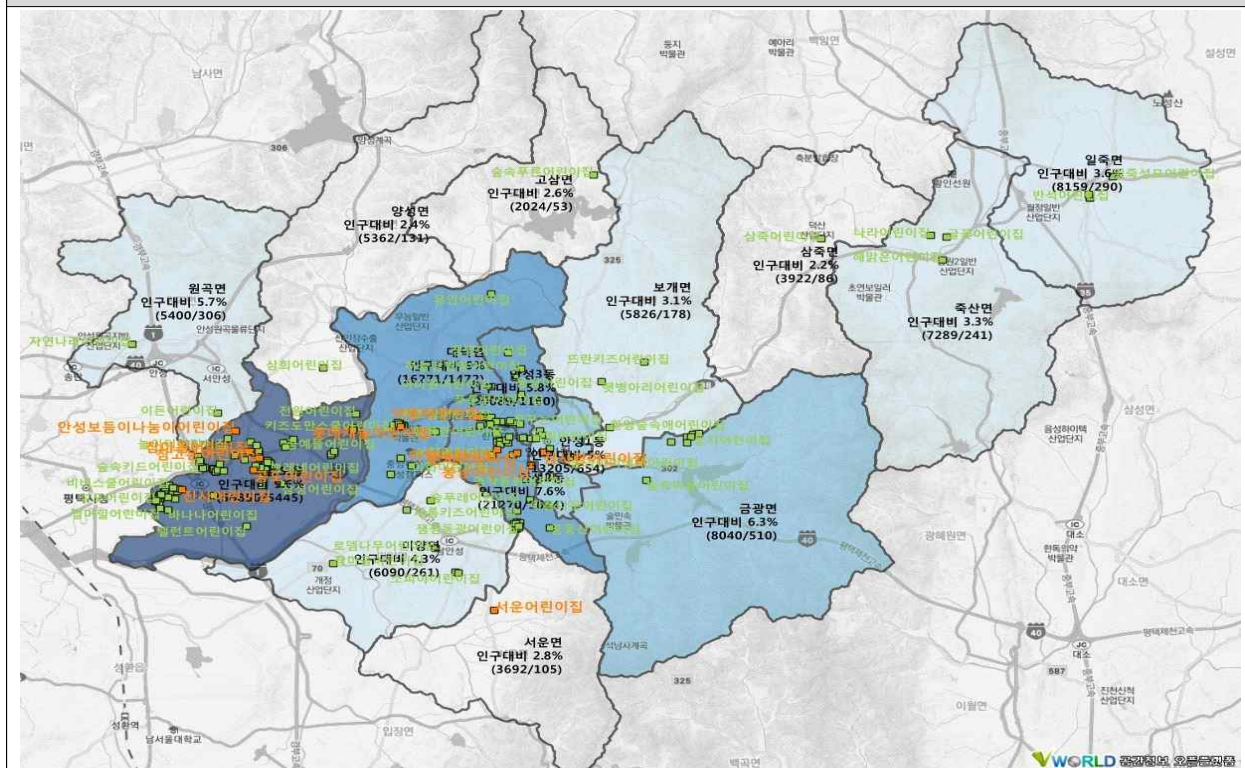
참고1

복지현황 파악을 위한 복지공감(共感) 지도

복지대상자 분포 온도지도(1KM 격자) 및 공공(★)·민간(★) 복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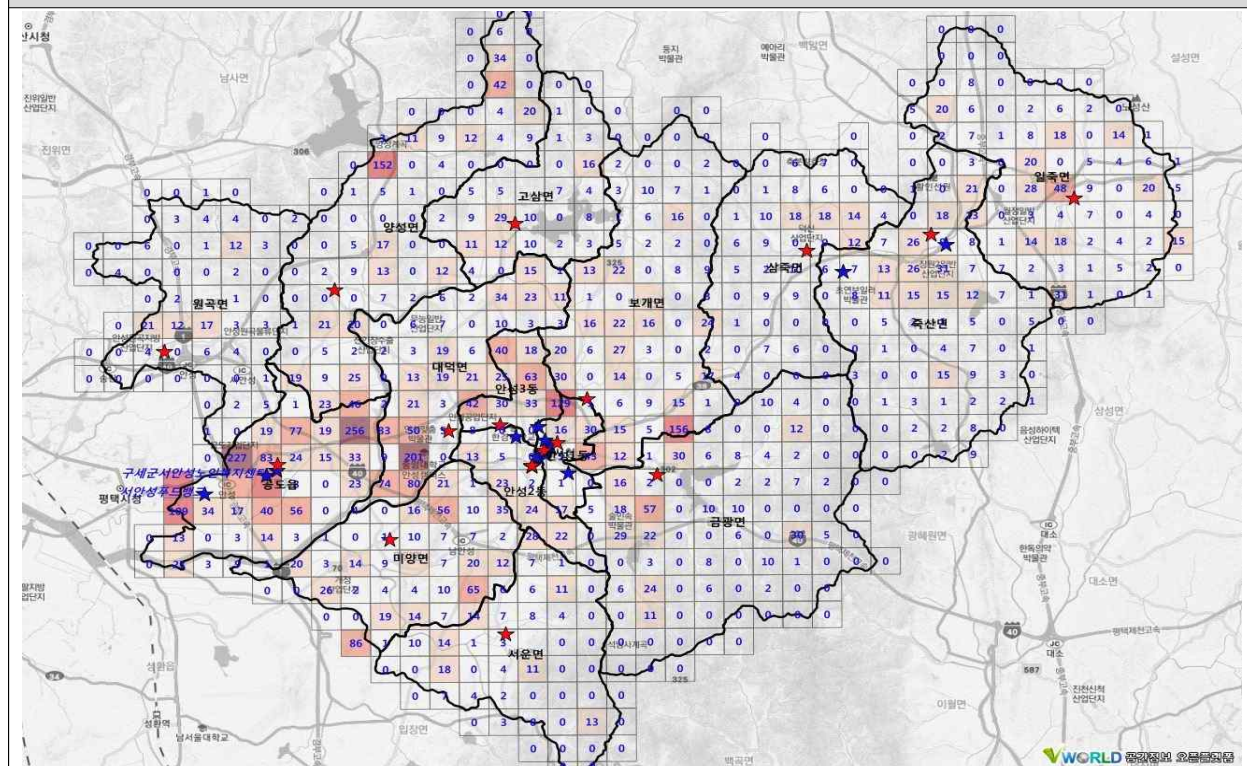
어린이집 위치(■국공립, ■사설) + 행정구역별 영유아 인구 및 비율



<접근성 분석 알고리즘(등시선 알고리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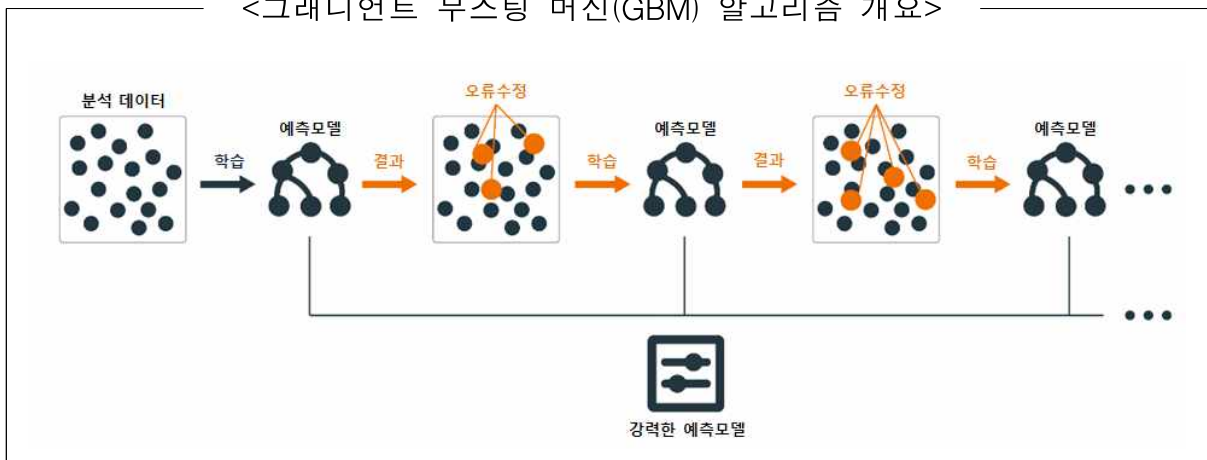
복지기관 접근성 취약지역 복지대상자 분포



○ GBM 알고리즘 설명

- (개념) 예측 및 분류 목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모델. 단순하고 약한 예측모델을 만들고 학습 → 예측오류 수정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반복, 결합하여 강력한 예측모델을 생성
- (특장점) 다양한 특성에서 유연하게 동작하며, 결과 최적화 과정을 통해 높은 예측 정확도 확보 가능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GBM) 알고리즘 개요>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 대한민국’ 만들기 앞장선다

- 국민권익위-17개 시·도지사, 제주시 청렴협약 체결 -

-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가 앞장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하 협의회)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청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협약서에는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청렴정책의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 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명시하였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함께 협력하여 더불어 행복한 청렴사회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전국 시·도지사는 이번 청렴협약에 민선7기 지방정부의 청렴의지를 담았으며, 바로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17개 시.도지사와 청렴협약을 체결

□ 개요

- 일시 : 2019. 1. 18. 14:30~14:50
- 장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참석 : 17개 시.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내용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협약) 박원순 서울시장과 위원장이 대표로 협약서에 서명
 - (기념촬영) 협약서를 들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기념촬영

※ 보도자료는 '19.1.17.(목), 기념촬영 사진은 1.18.(금) 행사직후 배포

□ 시간 계획

구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환담	14:30~14:40	10'	○ 환담 - 16개 시도지사 참석 확정(미정: 경기)	2층 우도 홀
협약식	14:40~14:45	5'	○ 인사말씀 - 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장 順	2층 라마다볼룸
	14:45~14:50	5'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서명 : 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 협약서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불공정과 부정부패로 인해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가 흔들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공정과 신뢰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이라는 사실과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만 모두의 삶이 개선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기관과 함께 주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같이한다.

전국 시·도지사는 청렴사회는 우리 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첫째, 부정부패를 배척한다.

우리는 양심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청렴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배척한다.

둘째, 민·관이 협력하여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시행한다.

우리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넷째, 반부패·청렴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

우리는 주민과 함께 반부패·청렴을 실천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항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한다.

2019. 1. 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서명)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경기도지사 이재명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통시장 지원 예산’ 18년 대비 1,616억원 증액한 5,370억원 규모로 확대 ‘

-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19년에 총 5,370억원을 지원한다.
 - 주차환경 개선, 안전시설 강화, 복합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희망시장을 2019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 사업 등은 ‘19. 2. 18.까지
- ‘19년도 전통시장 지원 방향은 지난 ‘18. 12월에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 복합청년몰 조성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상권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며
 -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방식을 상인주도형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체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 시 디자인 공모 의무화를 통해 문화, 역사, 시장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정책 수혜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 '19년도 전통시장 지원방향에 따른 사업별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편의시설, 주차장 등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을 중점 추진한다.

-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아래 '19년에는 신규 건립 45곳을 포함하여 109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 건립(신규 45, 2년차 18), 개보수 19, 이용보조 27

- 기존 아케이드 중심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태양광 전력사업*, 게스트하우스, 빈점포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전통시장 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과 공유경제 확산 사업을 반영·추진한다.

* '19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정 현황 : 전국 16곳, 124억원 규모(국비 74억원)

-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화가 심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 중심의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 (공용구간) 239곳, 275억원 / (개별점포) 57곳, 91억원

② 복합청년몰은 금년부터 입지제한 완화, 신개념 복합청년몰 도입, 지역커뮤니티 연계 강화 등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전통시장 → 오픈 상점가(예정지)로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폐공장, 농협창고, 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상점가 조성을 지원

* 기업형·조합형 공동창업(공동제조, 공동판매), 창업전문기업 연계 창업보육센터형 청년몰 등 신개념 청년몰 조성 허용

- 청년상인의 시장 안착 및 지속성장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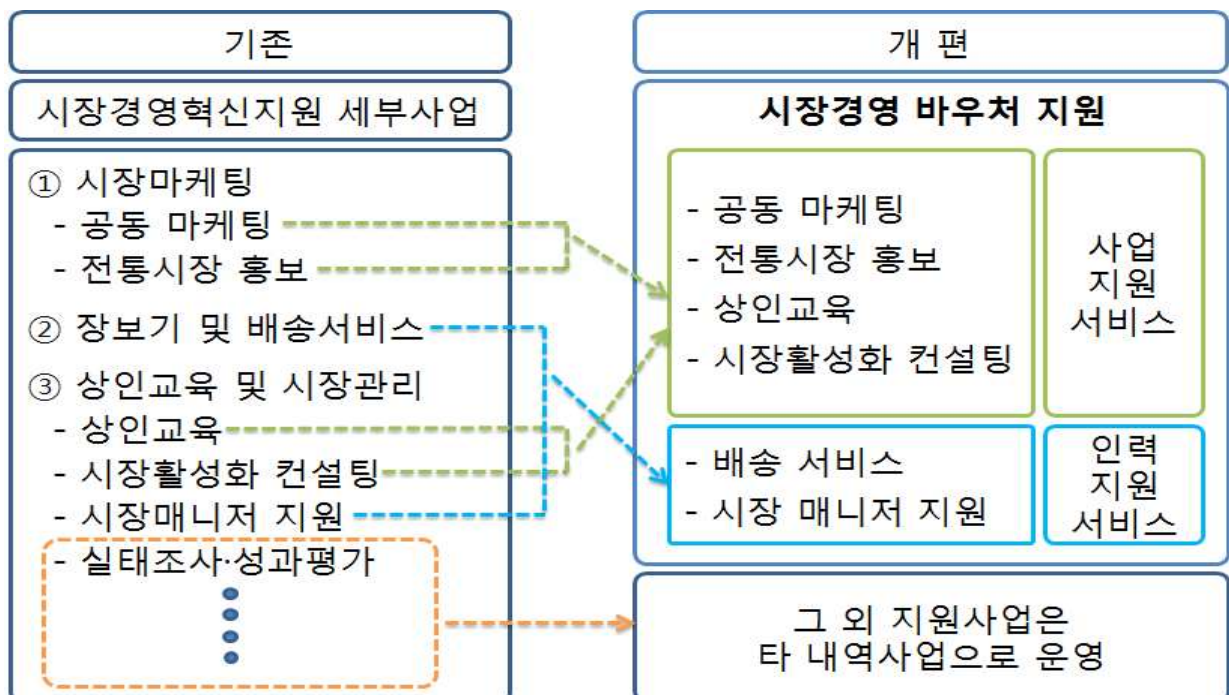
* (청년몰 사후관리) 청년몰 활성화지원(1년, 3억원), 확장지원(1년 10억원), 청년몰-대학협력 지원(1억원 이내) 등

* (청년상인 사후관리) 청년상인 도약지원, 백종원식 컨설팅 도입, 가업승계 및 인턴십 등을 통한 성공상인 경영·노하우 전수 등

③ 전통시장 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받는 상인주도형 체제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 내역사업간 예산 칸막이 제거, 수요자 필요에 따른 서비스분야 및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도입한다.

* 예산 및 지원규모 : 161억원, 340곳 내외(한 곳당 최대 6천만원)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관 주도로 추진했던 하향식 방식을 탈피, 상인과 고객이 주도하는 상향식 프로젝트 방식으로 개편하고 사업 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등급제”를 시행한다.

* 특성화 사업 결과물(유·무형 모두 포함) 유지·관리 실태 및 지자체, 상인회의 지원 실적, 우수 성과 확산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이후 사업 참여시 우대/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 유입 증가 → 매출증대 → 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19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광역시·도별로 2019년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손쉽게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아울러,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붙임 1. 2019년도 주요사업별 예산 및 지원규모

2.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순회 설명회 계획

붙임 1

2019년도 주요사업별 예산 및 지원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계획	'19년 예산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개선	공용주차장 건립·개량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100곳	142,373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430곳	123,687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안전점검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 파악·제거를 위한 점검	433곳	2,458
	화재감지시설	개별 점포별 화재감지 및 알람시설 설치	23,500점포	13,175
	화재공제	화재피해 보상으로 조속한 생업복귀 지원	-	990
	노후전선정비	개별점포의 전선을 정비하여 화재예방	57곳	9,096
복합청년몰 구성 및 활성화지원	청년몰구성	청년점포 및 고객 휴게공간 등이 집합된 청년몰 구성	5곳	3,700
	도약지원	청년상인에게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지원	270명	2,700
	활성화지원	전통시장 유희점포 활용 청년상인 창업지원	13곳	3,700
	대학협력	대학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애로과제 해결	7곳	1,600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	특성화시장	전통시장의 입지·역량을 감안 시장별 특색 발굴	신규 100곳 계속 75곳	36,100
	상권활성화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변 환경개선, 테마 공간 조성 등 자생력 확보를 지원	신규 5곳 계속 3곳	2,940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발행	-	177,164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전통시장·상점가는 부여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 지원사업을 선택·운영	340곳	16,500
조사 및 평가	조사 및 평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 방향 설정	-	863
합계				537,046

붙임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

- ☐ **(목적)** '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정책방향 소개, 사업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사업 수혜자 편의 제공

☐ **일시 및 장소**

연번	일 시	지역	장소
1	'19.1.09(수) 13:00~16:30	서울	서울종로구민회관
2	'19.1.10(목) 14:00~17:30	경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회의실
3	'19.1.14(월) 14:00~17:30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5층 대강당
4	'19.1.15(화) 14:00~17:30	경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5	'19.1.16(수) 14:00~17:30	대전·세종·충남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6	'19.1.17(목) 14:00~17:30	충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 교육장
7	'19.1.18(금) 14:00~17:30	인천	인천상인연합회 교육관
8	'19.1.18(금) 14:00~17:30	부산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관
9	'19.1.18(금) 14:00~17:30	전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대강당
10	'19.1.21(월) 14:00~17:30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11	'19.1.22(화) 14:00~17:30	광주·전남·제주	광주대학교 호심관
12	'19.1.23(수) 14:00~17:30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 상기 일정을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일정(14:00 기준)**

구 분		내 용
13:00~14:00	60분	교육접수
14:00~14:10	10분	인 사 말
14:10~14:50	40분	'19년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안내 및 질의응답
14:50~15:20	30분	특성화지원사업안내
15:20~15:30	10분	휴 식
15:30~16:30	60분	바우처지원사업안내 및 세부사업안내
16:30~16:40	10분	휴식
16:40~17:10	30분	청년상인 육성사업안내

고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현장실습 개선방안 모색

- 직업계고 현장실습 국회 공청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7일(목) 10:00 ~ 12: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향’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직업계고 학생 경청회’에서 학생들이 제기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마련되었다.

【 직업계고 학생 경청회 】

- ▶ 일자 및 장소 : 2018. 11. 28.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참석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특성화고 권리연합 소속 학생(6명), 직업계고 교장(2명) 및 교사(3명),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담당자(2명)
- ▶ 주요내용 :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대폭 감소에 따라 학생들이 당면한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참석하였고, 직업계고 학생·교원, 교원단체 관계자, 시·교육청 관계자, 기업 관계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공청회는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교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기업 담당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향’에 대해 송달용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의 발제로 시작하였으며,

- 토론자로는 직업계고 학생·교원, 특성화고 권리연합,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기업 및 전문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학생의 선택권과 학습권,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체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라며,

-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더 과감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 관련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고졸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산업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해법을 찾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학생들이 원활하게 직업세계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마중물로 만들어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직업계고 현장실습 국회공청회 계획

□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 '19. 1. 17(목), 10:00 ~ 12:00(12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요내용 :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 주최/주관 : 조승래 의원실, 교육부(박백범 차관)
- 참석대상 : 직업교육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약 100여명)
(관련 정부부처, 직업계고 관계자, 학생, 기업관계자 등)

□ 상세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5	15'	▶ 모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교육부 박백범 차관	
10:15 ~ 10:35	20'	▶ 발제 :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10:35 ~ 11:15	40'	▶ 패널토론(8명) -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고종현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교장) - 이준배 (아이빌트 세종 대표) - 정태현 (은평메디텍고 3학년 학생) - 신승인 (서울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 -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 장성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좌장 :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강경종 부원장
11:15 ~ 11:55	40'	▶ 청중 토론 및 종합 정리	
11:55 ~ 12:00	5'	▶ 폐회	

영유아, 노령층 스마트폰 과의존에 민관협력 대응 강화

-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을 수립·발표했다.
- 1인 1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전 세대에 걸쳐 삶의 필수요소가 된 환경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며, 정부-지자체-시민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번 계획에 따라 △배움, △상답·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대 정책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가 추진된다.
- 배움 영역에서는 규범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강조하던 기존의 예방교육 방식에서 정보화 역기능 원인과 해결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으로 전환하고, 정보, 게임,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능력 강화에 주력한다.
- 세대별로는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상승한 영유아와 고령층 대상 과제를 확대하며, 특히 어린이집 원아 대상

과의존예방 의무교육, 전문강사 방문교육, 문화체험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의 조기 형성을 지원한다.

○ 상담·치유 영역에서는 전국에 마련된 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상담효과 자체평가 및 사례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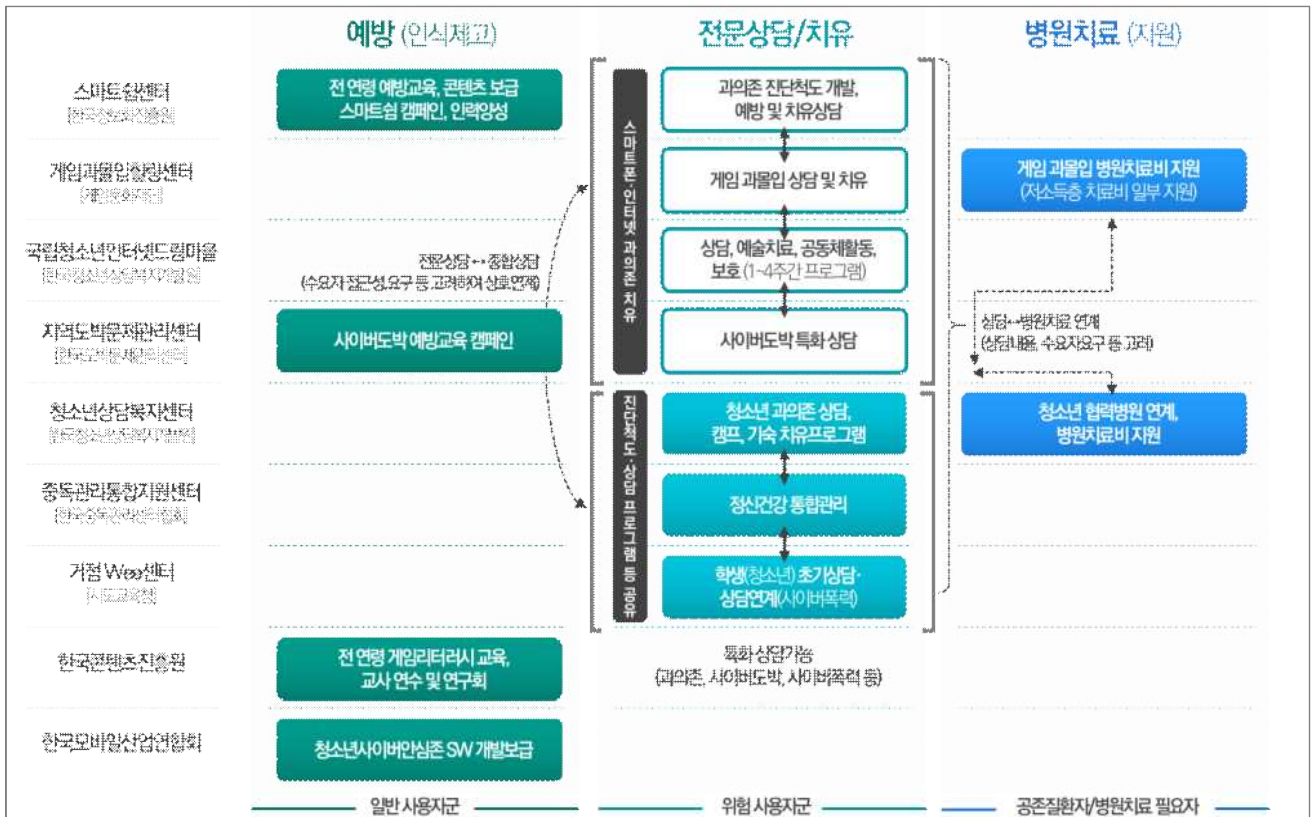
- 상담을 마친 시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동아리, 봉사, 교육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주는 디
지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 사회기반 영역에서는 영유아와 청소년이 긍정적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제고와 교원의 지도 능
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치유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상담 인력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소통·참여 영역에서는 국민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패널 및
모니터링단을 상시로 운영하는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이번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네트워크 “스마트쉼 문
화운동본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과제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시민 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정
책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폰 · 인터넷 과의존 전문기관 협력 체계>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제4차 종합 계획에서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관계 부처 협력의 결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광 분야 혁신 창업의 성공을 돕습니다

- 1. 23.~2. 27.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월 23일(수)부터 2월 27일(수)까지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관광벤처(예비관광벤처사업·관광벤처사업)와 해양관광벤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

공모전은 크게 ▲ 일반관광벤처 부문과 ▲ 해양관광벤처 부문으로 진행되며, 이중 일반관광벤처 부문은 예비관광벤처사업과 관광벤처사업으로 세분화된다. ▲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라면 예비관광벤처사업에, ▲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라면 관광벤처사업 부문에 참가하면 된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해양(호수, 강 등 내수면 포함) 관광시장에 특화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공급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사업자라면 2017년부터 도입된 해양관광벤처 부문에 참가하면 된다.

지역의 유망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설명회도 1월 30일(수)부터 2월 13일(수) 사이에 서울, 대전, 전북, 광주, 대구, 부산,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발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관광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 참여

▲ 예비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비 최대 4,000만 원(자부담 750만 원 포함)과 함께 기업별 컨설팅·교육, 홍보·마케팅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 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홍보·마케팅비 1,400만 원(자부담 350만 원 포함)과 국내외 판로 개척, 기업 간 협업사업 지원 등을 받는다. 또한 관광벤처보육센터(관광공사 서울센터 내 위치) 입주 자격도 제공된다.

▲ 해양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수부로부터 2,250만 원(자부담 없음)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해양관광 특화 교육, 판로 개척 지원은 물론, 문체부가 지원하는 관광벤처 아카데미 교육과 기업 간 교류(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예비)관광벤처기업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과 혁신적 관광기업의 성공사례 창출 위한 지원 지속

올해 9년째를 맞이하는 이 공모전은 그간 500여 개의 혁신적 관광기업을 발굴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창출하고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문체부와 해수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관광산업은 온라인 여행중개와

플랫폼경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야기·체험 위주의 여행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지닌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분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한 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은 공식 누리집(www.tourventure.or.kr)에서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양식을 확인하여 2월 27일(수)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공고요강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 사무국(02-6395-3127)에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공고문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2019. 1.23(수) - 2.27(수)
www.tourventure.or.kr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지역 설명회 일정

구분	장소	일시
전주	전북연구원 별관 컨퍼런스룸(3층)	1.30(수) 14:00~16:00
제주	제주청조경제혁신센터 제주벤처마루 트래블(3층)	1.30(수) 14:00~16:00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204호)	1.31(목) 14:00~16:00
대전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3층)	2.8(금) 14:00~16:00
서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대강의실(10층)	2.11(월) 14:00~16:00
대구	대구청조경제혁신센터 씨쿼드홀(1층)	2.12(화) 14:00~16:00
부산	콘텐츠코리아랩 센텀 메인센터 북합공관(5층)	2.13(수) 14:00~16:00

※ 설명회 참가 사전신청 : venture@knto.or.kr

참가대상 | 관광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응모방법 |

사업계획서 : 지정 사업계획서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접수마감 : 2019년 2월 27일(수) 14:00까지 / 우편접수 불가
문의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02-6395-3127)

수상자혜택 |

일반관광벤처 부문	예비관광벤처사업 (70개 내외 선발) ◇ 개별 사업화자금 4,000~2,250만원 지원(자부담 750만원 필수) ※ 전북 소재기업은 전북(지자체 예산)에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추가지원 예정 ◇ 창업역량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홍보 판로개척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관광벤처보육센터 입주자격 부여
	관광벤처사업 (20개 내외 선발) ◇ 개별 홍보마케팅비 1,050만원 지원(자부담 350만원 필수) ※ 전북 소재기업은 전북(지자체 예산)에서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 수여 ◇ 관광산업육성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 포함(펀드운영사 최종결정) 등 투자유치 지원 ◇ 국내외 홍보 판로개척 집중지원 ◇ 관광벤처보육센터 입주자격 부여
해양관광벤처 부문	해양관광벤처사업 (10개 내외 선발) ◇ 개별 사업화자금 2,250만원 지원 ◇ 창업역량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홍보 판로개척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벤처사업)

주관 | 한국관광공사

겨울방학에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주 요 내 용 》

◆ 2월 추천 여행지, 농촌체험휴양마을 5선 소개

지역	여행지	위치	체험	주변 관광지
경기권	서경들마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178번길 32	꼬마메주 만들기, 고추장 만들기, 청국장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두부 만들기, 다식 만들기, 전통주 만들기, 열기구 타기 등	설봉공원, 테르메덴, 이천 돼지 박물관, 마옥산 농업테마공원, 민주화공원 등
강원권	눈꽃마을	강원도 평창군 차항길 11	봄슬레이 눈썰매, 만둣국 만들기, 스노우 래프팅, 전통 활쏘기, 투호, 레일썰매 등	오대산 월정사, 알펜시아 리조트, 용평 리조트, 삼임목장, 양떼목장 등
충청권	알프스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175-11	눈썰매·얼음썰매·얼음봄슬레이 타기 군밤 구워먹기, 빙어 낚시, 조롱박 공예, 박 미스트 만들기 등	칠갑산, 출렁다리, 장곡사 등
전라권	학정마을	전북 임실군 삼계면 학정3길 46	전통 쌀엿 만들기, 생활 공예, 전통놀이, 팔찌 만들기 등	임실치즈테마파크, 박사골마을, 김용택 시인 생가, 옥정호 등
경상권	숲엿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38	딸기 따기, 전통 쌀엿 만들기, 연 날리기, 감 염색 체험, 고가 체험, 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강정 만들기 등	수승대(눈썰매장), 월성우주과학관, 사모바위 등

◆ 선정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 에서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월에 떠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5선’을 선정·발표했다.

* 2016년부터 『계절 테마별 농촌여행』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계절·주제 등에 적합한 농촌여행코스 또는 농촌여행지를 선정, 발표해 오고 있음

○ 이번 농촌여행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겨울 체험을 할 수 있는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했다.

*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 ‘이천 서경들마을’은 전통 장류체험에 특화한 마을이다. 품질 좋은 메주콩이 나는 곳으로 마을 내에 전통장숙성실을 갖추고 있으며 따뜻한 두부와 장을 곁들인 마을 식사가 맛있기로 유명하다. 음식의 역사, 효능 등 설명을 들으며 꼬마메주 만들기, 고추장 만들기, 청국장 만들기 등 전통 장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다.

○ ‘평창 눈꽃마을’은 대관령에 위치한 마을로 겨울이면 봅슬레이 눈썰매를 타러 오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직선코스가 아닌 구불구불한 슬로프를 따라 속도감 있게 내려가는 눈썰매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한다. 또한 고랭지배추로 만든 김치로 만두를 빚어 만들어 먹는 만둣국은 눈꽃마을의 겨울철 별미다. 활쏘기, 투호 등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 ‘청양 알프스마을’은 올겨울 제 11회 칠갑산얼음분수축제를

연다. 축제장에 들어서면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눈조각과, 얼음동굴이 방문객을 반긴다. 눈썰매와 얼음봅슬레이 타기, 빙어 낚시, 군밤 구워먹기, 조롱박 공예체험 등 다양한 놀거리가 많아 종일 시간가는 줄 모른다. 축제는 2월 17일까지 계속된다.

- ‘임실 학정마을’은 전통 쌀엿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입소문을 타서 명절이면 전국에서 주문량이 밀려들어오는데 마을에 방문하면 이러한 전통 쌀엿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전통놀이 자격증 보유자로부터 고무줄놀이, 자치기, 비석치기 등 전통놀이를 배워볼 수도 있다.
- ‘거창 숲엿마을’은 예스러움이 묻어나는 오래된 가옥과 거창군 천연보호림 제 2호인 갈계숲이 어우러진 마을이다. 딸기가 유명한 지역이니 만큼 딸기 따기 체험을 주로 운영하며, 연 날리기, 엿 만들기, 감 염색체험 등 겨울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체험도 다양하게 진행한다. 고가와 재실, 서당 등 마을 곳곳에 위치한 문화재를 둘러보고 갈계숲을 여유롭게 거닐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❶ (경기권) 이천 서경들마을 ❷ (강원권) 평창 눈꽃마을 ❸ (충청권) 청양 알프스마을 ❹ (전라권) 임실 학정마을 ❺ (경상권) 거창 숲엿마을

○ 선정된 마을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는 농촌 및 농촌여행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매월 계절에 어울리는 우수 농촌여행지를 지속적으로 선정·제공할
계획이다.

1 [경기권] 이천 서경들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	서경들마을(대표 : 송성재)
○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1178번길 32
○ 연락처 / 홈페이지	031-634-1089(예약 · 문의) / www.seogyong.kr

체험 현황(2월)

꼬마메주 만들기, 고추장 만들기, 청국장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두부 만들기, 다식 만들기, 전통주 만들기, 열기구 타기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최대수용인원	비고
시설 현황	체험시설	실내체험장 3개소, 야외체험장1개소	200명	
	식당시설	식당 2개소	80명/90명	
	숙박시설	콘도형4, 큰방3,작은방5	총 60명	
	상품판매장	전통장류판매장 1개소	-	
	기타시설	놀이터, 열기구시설 등	-	
인근 관광지		마옥산, 농업테마공원, 민주화공원, 설봉공원, 테르메텐, 이천돼지박물관 등		

사진자료


꼬마메주 만들기



두부 만들기



다식 만들기



청국장 만들기

2 [강원권] 평창 눈꽃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	눈꽃마을(대표 : 최덕규)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차항길 11
○ 연락처 / 홈페이지	033-333-3301(문의 및 식사 예약) / http://www.snowtown.co.kr (숙박 예약)

체험 현황(2월)
봄슬레이 눈썰매(10~16시, 상시 운영), 고랭지 배추김치로 만두 빚어 만둣국 만들기, 스노우 래프팅*, 전통 활쏘기 체험, 레일썰매, 투호 체험 등
* 적설량에 따라 체험 가능 여부 달라짐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최대수용인원	비고
시설 현황	체험시설	체험 및 숙박 시설	50명	
	식당시설	1개소(식사, 간식거리 판매)	40명	
	숙박시설	단층 4개소, 복층 4개소	50명	
	기타시설	눈썰매장	-	
인근 관광지		오대산월정사,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 삼양목장, 양떼목장 등		

사진자료	
	
봄슬레이 눈썰매	봄슬레이 눈썰매
	
고랭지 배추김치로 만두 빚기	스노우 래프팅

3 [충청권] 청양 알프스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	알프스마을(대표 : 황준환)
○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175-11
○ 연락처 / 홈페이지	041-942-0797(예약·문의) / www.alpsvill.com

체험 현황(2월)

얼음분수·눈조각·얼음조각·얼음동굴 등 볼거리 즐기기, 눈썰매·얼음썰매·얼음봅슬레이 타기, 군밤 구워먹기, 빙어 낚시, 짚트랙, 조롱박공예, 박미스트 만들기 등
 ※ 제 11회 칠갑산얼음분수 축제('18.12.22 ~ '19.2.17)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최대수용인원	비고
시설 현황	체험시설	조롱박공예, 박미스트 만들기 체험관	50명	
	식당시설	메인식당(72석), 예약식당(100명이상수용)	180석	
	숙박시설	도농교류센터(단체숙박용이) 50평형 1개소, 35평형 1개소 25평형 1개소, 13평형 3개소	130명	
	기타시설	운동장, 교육관, 야외체험관 등	100명 이상	
인근 관광지		칠갑산, 출렁다리, 장곡사 등		
마을축제		제 11회 칠갑산얼음분수축제('18.12.22 ~ '19.2.17)		

사진자료



포토존



얼음썰매



조롱박 인두화 체험



장작불에 군밤 구워먹기

4 [전라권] 임실 학정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	임실 학정마을 (위원장 : 신승철)
○ 주 소	전북 임실군 삼계면 학정3길 46
○ 연락처 / 홈페이지	063-644-8821(예약 · 문의) / http://hjgreen.com
체험 현황(2월)	
전통 엿 만들기, 생활 공예, 팔찌 만들기, 전통놀이, 마카롱 비누 만들기 등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최대수용인원	비고
시설 현황	체험시설	박사골 예절관(다목적실)	약 80명	
	식당시설	(다목적실 활용)	-	
	숙박시설	펜션형(30평 1개, 20평 2개)	약 60명	
	특산물 판매	(다목적실 활용) 쌀엿 조청 도라지 배즙 등 판매	-	
인근 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박사골마을, 구담마을(영화 ‘아름다운 시절’ 촬영지), 김용택 시인 생가, 옥정호 등		

사진자료	
	
엿 늘이기	엿 자르기
	
체험관	체험관 외관

5 [경상권] 거창 숲옛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	숲옛마을(대표 : 신은범)
○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38
○ 연락처 / 홈페이지	055-942-2247(예약 및 문의) / oldvil.go2vil.org

체험 현황(2월)
딸기 따기, 전통 쌀엿 만들기, 연날리기, 감 염색 체험, 고가 체험, 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강정 만들기, 투호 등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최대수용인원	비고
시설 현황	체험시설	체험실 실내1 / 실외1	30/40명	
	식당시설	식당시설 1개소 / 실외1	45/80명	
	숙박시설	은진임씨사료관, 수심당, 정심당	15/10/15명	
	기타시설	회의실, 체육시설(족구장, 게이트볼장)	80명	
인근 관광지		수승대(눈썰매장), 월성우주과학관, 사모바위 등		

사진자료	
	
마을 전경	떡메치기
	
딸기체험	갈계숲



이 겨울이 가기 전에!
2월 농촌체험휴양마을

경기 이천



서경들마을

전통장류 체험에 특화된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콩의 다양한 변신을 경험하고 맛있는 추억을 쌓아보자!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

눈조각, 눈·얼음썰매, 짙라인, 군밤 구워먹기 등 재밌는 놀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칠갑산얼음분수축제!

전북 임실



학정마을

명절이면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드는, 전통 쌀엿으로 유명한 마을! 마을에서 직접 쌀엿을 만들고 전통놀이도 해보자!

강원 평창



눈꽃마을

시야가 탁 트인 대관령 고지대의 마을. 구불구불한 코스를 따라 속도감 있게 내려가는 봅슬레이 눈썰매는 남녀노소 인기 만점!

경남 거창



숲엿마을

예스러움이 묻어나는 고택과 길게쑥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마을. 딸기따기, 연날리기, 옛만들기 등 다양한 겨울체험이 가능하다!

■ 2월 여행지
■ 지난 여행지

생물다양성의 보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 최근 3년간 전국 습지 조사결과...74곳 소실, 91곳 면적 감소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 환경부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지난 1월 12일에서 1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서울 등 12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대구
-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시행하는 5개 시도는 오늘 미세먼지(PM2.5) 실측농도가 $50\mu\text{g}/\text{m}^3$ 초과하고, 내일 예보가 $50\mu\text{g}/\text{m}^3$ 을 초과하는 등 ‘미특법’ 시행규칙(안)에 따른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 ① 당일 0~16시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
- ② 당일 0~16시 주의보($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
-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mu\text{g}/\text{m}^3$ 초과 예상

- 5개 시도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의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현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미특법' 시행 이후에는 3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끝.

지역	발령 요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① 오늘 $50\mu\text{g}/\text{m}^3$ (실측)+ 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② 오늘 주의보+ 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대전	① 오늘 $50\mu\text{g}/\text{m}^3$ 초과(실측) +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예보)
충남	① 오늘 주의보·경보 발령시(발령권역) ② 내일 매우나쁨(예보, 전지역)
충북	① 내일 매우나쁨(예보)
광주	① 내일 매우나쁨(예보)
전북	① 오늘 $50\mu\text{g}/\text{m}^3$ 초과(실측)+ 내일 $35\mu\text{g}/\text{m}^3$ 초과(예보)
세종	① 오늘 $50\mu\text{g}/\text{m}^3$ (실측)+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② 오늘 주의보+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전남	① 오늘 $50\mu\text{g}/\text{m}^3$ (실측)+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② 오늘 주의보+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대구	① 오늘 $50\mu\text{g}/\text{m}^3$ (실측)+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② 오늘 주의보+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경북 (신규)	① 오늘 $50\mu\text{g}/\text{m}^3$ (실측)+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② 오늘 주의보+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강원 (신규)	① 오늘 $50\mu\text{g}/\text{m}^3$ (실측)+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② 오늘 주의보+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울산 (신규)	① 오늘 $50\mu\text{g}/\text{m}^3$ (실측)+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② 오늘 주의보+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경남 (신규)	① 오늘 $50\mu\text{g}/\text{m}^3$ (실측)+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② 오늘 주의보*+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 도내 3곳 이상 발령시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제주 (신규)	① 오늘 $50\mu\text{g}/\text{m}^3$ (실측)+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② 오늘 주의보+내일 $50\mu\text{g}/\text{m}^3$ (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 미특법 시행이전 전 시·도 즉시 시행

※ 지역별 발령 요건은 미세먼지 미특법 시행('19.2.15) 이후 수도권과 동일하게 일원화 예정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직업 능력이 중요한가?

- 한국고용정보원, 4차 산업혁명 전문가 250명 대상 미래직업기초능력 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가 꼽은 미래 중요도 1위 ‘위기대처능력’ -

-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직업능력을 갖춰야 변화무쌍한 미래 직업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홍)은 2030년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글로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미래 트렌드를 전망하는 조사업체인 퀀텀런(Quantumrun)이 꼽은 ‘2030년까지 생존 가능한 50대 글로벌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해 직업기초능력 15개를 선정한 뒤, 4차산업혁명 전문가 250여명*이 중요성을 평가했다.
 - * 스마트서비스, 휴먼서비스, IT서비스, 사이버금융, 지능형플랫폼 종사자 각 50명
 - ※ 퀀텀런은 미국 포브스지, 폭스 뉴스 등이 주목한 장기적 미래예측 기관으로 매출, 브랜드 파워, 혁신 친화성 등 다양한 요소로 1000개 생존 기업 순위를 발표했으며, 연구에서는 상위 50곳이 사용됨
-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은 과거(5년 전)에는 열정이 가장 중요한 직업기초능력이었지만, 현재와 미래(10년 후)에는 위기대처능력의 중요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 열정은 과거 중요도 평가에서 1위였으나 현재와 미래 중요도는 각각 2위와 9위에 올랐다.

○ 위기대처능력은 과거 2위, 현재 및 미래 모두 1위로 골고루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 위기대처능력 이외에 미래 중요성이 높은 직업기초능력으로는 대응력(2위)과 미래 예측력(3위)이 꼽혔다.

□ 미래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진 직업기초능력으로는 과거 9위에서 미래 3위까지 오른 미래 예측력과 과거 14위에서 미래 4위까지 상승한 인지적 부담 관리* 등이 있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인지적 수용력(Capacity)을 관리하는 능력

○ 반면, 다재다능의 경우 과거 8위였으나 미래에는 15위를 기록했다.

<표> 미래형 직업기초능력 중요성 분석

(5점 만점)

구분	과거(5년 전)		현재		미래(10년 후)	
	중요성	순위	중요성	순위	중요성	순위
평균	3.34	•	3.75	•	4.06	•
대응력	3.54	4	3.95	3	4.24	2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3.07	13	3.65	12	4.10	8
호기심	3.24	10	3.66	11	3.98	12
전체 조망력	3.11	12	3.71	9	4.13	7
환경 친화성	3.40	7	3.75	8	3.91	13
위기대처능력	3.70	2	4.03	1	4.29	1
다재다능	3.37	8	3.50	13	3.62	15
열정	3.84	1	3.97	2	4.09	9
기업가정신	3.14	11	3.43	15	3.67	14
미래 예측력	3.36	9	3.80	6	4.23	3
자기혁신	3.46	5	3.84	5	4.09	9
통찰적 사고력	3.45	6	3.78	7	4.09	9
기계협업능력	2.82	15	3.50	13	4.17	5
인지적 부담 관리	2.96	14	3.71	9	4.19	4
회복탄력성	3.65	3	3.90	4	4.15	6

-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과거 추격형 개발 사회에서는 선진국이나 선도기업의 모범과 경영진의 상명하달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열정’이나 ‘책임감’이 우선적으로 요구됐다”며,
 -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연결성이 더욱 촘촘해지는 미래사회에서는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기 위한 ‘위기대처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박 연구위원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암기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며,
 - “다양한 체험과 소통이 가능한 산학연계 프로젝트형 일터학습 지원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집합적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붙임. 직업기초능력 정의

구분	직업기초능력	정의
미래형	대응력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목표나 능력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나이 종교 성 인종 가치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포용하는 능력
	호기심	무엇이든 알고 싶어 하는 마음과 이를 확인하려는 능력
	전체 조망력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이해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전체(시스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조망하는 능력
	환경 친화성	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곳에 호감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능력
	위기대처능력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피해를 보는 외중에도 침착하게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능력
	다재다능	지식과 경험이 많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는 능력
	열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기업가 정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능력
	미래 예측력	다양한 환경 분석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자기혁신	자신의 잘못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개선하거나 고치는 능력
	통찰적 사고력	느낌 경험 관찰을 종합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
	기계협업능력	지능화된 기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업무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능력
	인지적 부담관리	통화 요청 이메일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트위터 RSS 피드 등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능숙하게 자신의 인지적 수용력(capacity)을 관리하는 능력
	회복 탄력성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전통형	의사소통능력	업무를 수행할 때 글과 말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자신이 뜻한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 구성원의 협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
	자기관리역량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능력
	문제해결력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
	창의력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능력
	윤리성	직업생활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숙지하고, 나의 행동이 적당한지 이기적인지 깊이 생각하여 결정하는 능력
	협력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목표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
	시민의식	한 사회의 시민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자기 주도성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며 문제를 스스로 찾거나 해결하는 능력
	책임감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하는 임무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는 능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33,921건 지원 실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가 총 33,921건의 지원을 실시했고,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운영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는 지난 해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하였고,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지원센터 운영 실적

- 지원센터는 개소 시점부터 전년도 말까지 8개월 동안 총 2,379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접수해 총 33,921건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삭제 지원은 28,879건이다.

<지원센터 운영 실적>

(’18.4.30~12.31, 누적건수)

지원건수 (피해자 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지원	의료지원
33,921건 (2,379명)	4,787건	28,879건	203건	52건

-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해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하여 수집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며, 이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병행한다.

【피해 유형별 분석】

-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5,687건 중 유포피해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 현황>

(’18.4.30~12.31, 누적건수)

구 분	합계	유포	불법촬영	유포협박	사진 합성	사이버 괴롭힘	몸캠 및 해킹	기타*
피해건수 (건)	5,687	2,267	1,699	803	153	251	31	483
비율 (%)	100	39.9	29.9	14.1	2.7	4.4	0.5	8.5

* 기타 :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다른 폭력피해자 접수건

- 피해자의 절반 이상(1,301명, 54.7%)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1,699건 중 1,282건(75.5%)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포 피해 총 2,267건 중 1,282건(56.6%)은 피해자가 피해영상이 제작된 것을 몰랐던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었으며,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 불법촬영 1,699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592건(34.8%)이었으며, 65.2%가 **지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피해자 분석】

-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2,379명 중 여성이 총 2,108명으로 **88.6%**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271명에 달했다.

<피해자 세부 현황>

(‘18.4.30.~12.31, 누적명수)

구분	합계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379 (100%)	172 (7.2)	432 (18.2)	185 (7.8)	68 (2.8)	40 (1.7)	1,482 (62.3)
여	2,108	150	389	165	46	28	1,330
남	271	22	43	20	22	12	152

-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30대가 617명(2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분석】

-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5.7%), 다음으로 성인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

(’18.4.30~12.31, 누적건수)

구분	합계	SNS	성인 사이트	P2P	웹 하드	검색결과 삭제*	기 타 (커뮤니티등)
삭제지원 건수(건)	28,879	10,312	8,239	2,158	317	6,705	1,148
비율(%)	100	35.7	28.5	7.5	1.1	23.2	4.0

* 포털사이트에 피해자 신상정보 등 검색결과삭제 요청

-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2,533건으로, 삭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달라지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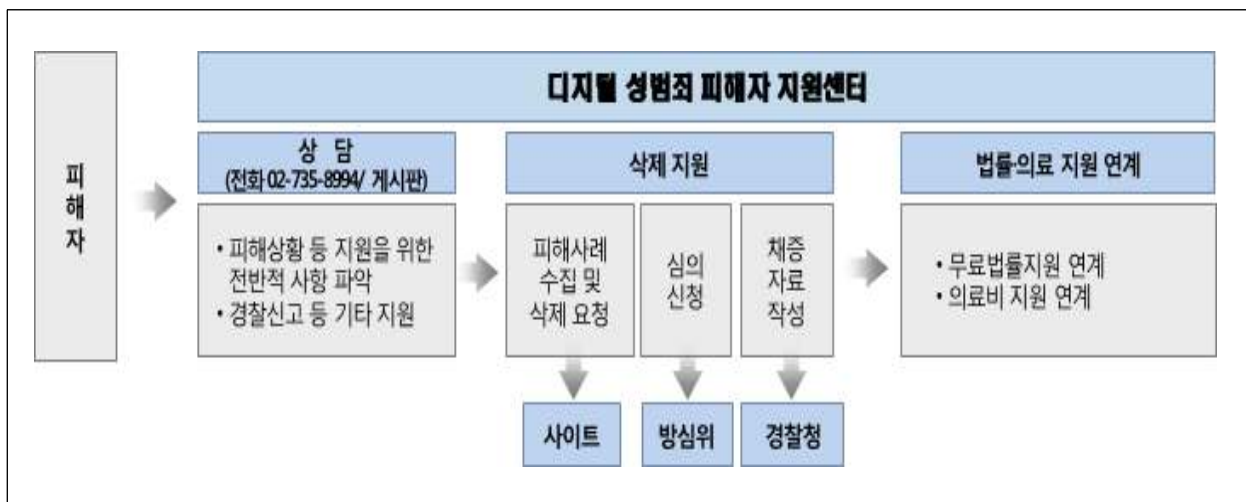
- 올해 여성가족부는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지원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16명 → 26명)하여 피해자의 삭제 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히,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한다.
 - 또한, 기존에는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한정되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아울러, 지원센터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피해영상물 검색과 수집을 효율화하고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하게 되며, 지원센터와 관계 부처 간 기능 연계를 강화한다.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경찰청 ‘음란물 추적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심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처리 시스템 고도화 : 민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 핫라인 구축
- 또한,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불법영상 차단 기술을 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요

- ☐ 수행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개소일 : '18. 4. 30.(월)
- ☐ 인 력 : 총 26명
- ☐ 지원 서비스 :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기타(법률·의료·보호시설연계) 지원
- ☐ 접수 방법 :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및
전화 접수(02-735-8994)
- ☐ 지원체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용자 신청하세요...16일부터

- 복합개발형 총 사업비 50%까지 지원...연2%대 장기저리로 산단 활성화 기대 -

□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용자 신청을 1월 16일부터 접수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9년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09년 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

○ 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용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이번에 지원되는 용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 산단 내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과 창업기업·선도기업 간 연계를 통해 새싹기업 성장기반을 구축 촉진

-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 (복합개발형 용자)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

* (기반시설형 용자)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노후 산업단지 23개소에 국비지원 6,090억 원(지자체 5:5 매칭)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사업비 1조 2,180억 원으로 추진 중

- 또한, '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되어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노후산단 83개의 도심까지 평균 거리는 5.8km로 56%가 도심 5km이내 입지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2013)

○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 '18.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용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
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
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금용자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동부도시금융센터	(02) 6123-8312·3, 8323~5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충북·충남, 대전, 세종
서부도시금융센터	(02) 6123-8362~5, 8372·4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남부도시금융센터	(051) 998-6722~4, 6732·3
	경북·경남·전북·전남, 대구·울산·부산·광주, 제주

명태자원 회복 위해 앞으로 연중 포획 금지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1. 21.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 21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하여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종자 어린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자원 회복활동 추진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라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진 배경

- 과도한 어획 등으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켜 국민식탁에 제공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 추진 현황

- (추진체계) 해수부·지자체·학계 간 공동추진
- (자원회복) 명태 산란·회유경로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21.49km²)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15.10) 및 자연방류 추진
- (양식기술 개발) '15년 인공 부화시켜 기른 어미로부터 수정란(12만개)을 확보하여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개발 성공('16.10)
- (종자방류) 강원도 해역에 인공종자 지속 방류*(122만 6천 마리)
* '15) 1.5만 마리 → '16) 1천(표지방류) → '17) 30만 → '18) 91만(1천마리 표지방류)
- (종자생산 및 양식산업 기반 확충) 방류용 종자 대량생산 인프라 구축 및 명태 양식 기반 구축
* 한해성(명태)종자 대량생산시설 구축(총사업비 48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
: 전문생산동 15억원, 해수취수관 3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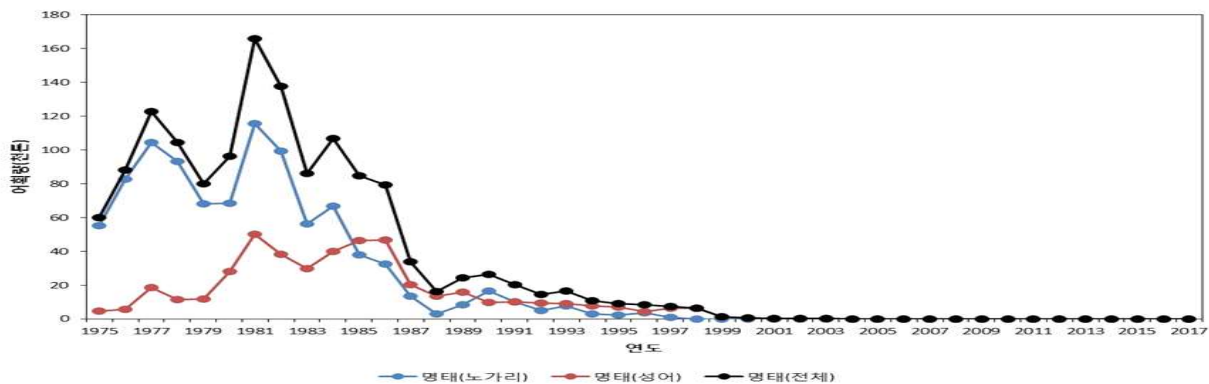
□ 향후 추진계획

- (종자방류) 방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량 방류 지속

□ 명태의 생태적 특징

- 대구목(Order Gadiformes), 대구과(Family Gadidae)
 - Walleye(Alaska) pollock / *Gadus (Theragra) chalcogramma*
- 분포/수심: 동해, 오후츠크해, 베링해, 북태평양/50~500m
- 주산란기/산란수: 12~1월(적수온 5~7℃)/25~100만개
- 회유경로: 북한→남하(산란)→북상, 근해→연안(산란)→근해
- 성숙체장/수명: 암 32.5cm, 수 30cm(3~4세)/20세(120cm)

□ 연도별 명태 어획량(1990년~2018년)



출처 : 통계청

년도	어획량(톤)	년도	어획량(톤)
1990	9,798	2004	64
1991	10,104	2005	25
1992	9,504	2006	60
1993	9,043	2007	35
1994	7,605	2008	0
1995	6,903	2009	1
1996	4,445	2010	1
1997	6,373	2011	1
1998	6,232	2012	0
1999	1,392	2013	0
2000	766	2014	2
2001	207	2015	3
2002	215	2016	5
2003	242	2017	0

출처 : 통계청

* '18.12 통계청 어획량 산정 전으로 8~9톤으로 추정